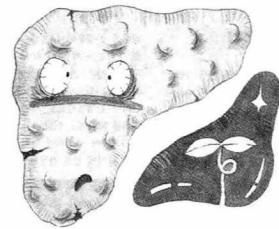




GOT, GPT로 알아보는 질병상태



다음의 자료는 간장 및 심장의 건강상태를 알기 위한 기본적인 판단 요소가 되므로 검사시 건강관리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1. 급성간염의 경우

GPT > GOT 수치이면서 양쪽 모두 500단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극중간염에서는 2,000단위 이상이 되기도 한다.

2. 만성간염의 경우

GOT, GPT 수치는 모두 50 ~ 300단위 정도로 역시 GPT > GOT 수치이다. 활동성인 경우에는 GPT 수치가 높다. GOT, GPT 모두 200단위 이상일 경우, 반드시 수치를 감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300이상일 경우는 병원에 입원, 종합검진이 필요하다.

3. 간경변증의 경우

GOT, GPT 수치가 모두 50 ~ 100단위로, GOT > GPT 수치가 되며, 간염에 비해 수치가 낮은 것은 간세포 수(數)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4. 간암의 경우

GOT 수치가 GPT 수치의 3배 정도가 된다. 동시에 종양마커의 AFP가 상승한다.

5. 기타 간장병의 경우

지방간의 경우에는 GPT > GOT 수치로 콜린에스테리아제의 수치도 상승, 알코올성 염증의 경우에는 GOT > GPT 수치로 r-GTP(GGT라고도 하며 간질환의 가장 예민한 지표이다. 아미노산을 세포내로 운송하는 효소로 습관적인 음주나 약물복용으로 간에 이상이 생기면 대량으로 생성된다)가 상당히 상승한다.

6. 심근경색의 경우

GOT 수치는 상승하고 GPT 수치는 정상인 패턴을 취한다. 동시에 근육내 효소인 CPK(크레이틴포스포카니아제)가 상승한다. 이 패턴은 근염, 중증 근무력증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또한 장시간 신체

이나 스포츠를 했을 때도 GOT, CPK 수치가 상승한다. 그러므로 GOT수치나 CPK 수치만 상승할 때는 반드시 검사일 또는 그 전날의 운동 상태를 염두에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7. LDH(유산탈수소효소 – GOT, GPT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변화가 빠르고 간 이외에서도 혈중에 방출된다)

가. 간장병의 경우

LDH 수치의 상승과 함께 GOT GPT 수치도 상승한다.

나. 암의 경우

중증 이상의 암에서는 LDH 수치가 1,000단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다. 혈액질병의 경우

악성빈혈에서는 LDH 수치가 고도로 상승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 용혈성빈혈에서도 LDH 수치가 상승한다.

라. 근육질환의 경우

심근경색, 근염, 근디스트로피증은 CPK 수치나 GOT 수치가 함께 상승, 또 작업이나 운동 후에도 상승한다.

마. 결림, 근육통의 경우

피로의 원인 물질인 유산 때문에 결리게 되고, 근육통에서도 LDH 수치가 상승 한다.